
 한국건강가정진흥원 <small>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small>		<h1>보도자료</h1>			
http://www.kihf.or.kr					
보도일시	2026. 4. 29.(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6. 4. 28.(화) 오후 12:00 이후			본문 2쪽 붙임 3쪽	
배포일자	2026. 4. 28.(화)	담당부서	가족상담서비스부		
담당부서장	강복정 부장(02-3140-7920)	담당자	강복정 부장(02-3140-7920)		

이주여성 폭력 정책 서비스 이용 이전부터 지원

- 상담데이터 1만 6천 건 분석... 가정폭력 77.1%, 체류자격별 폭력 양상 뚜렷
- 다누리콜센터, 상담-지원-연계-사후관리 통합 대응체계 구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 이하 한가원)은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2025년 기준 상담 23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6,300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이 정책 이용 이전 단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을 제공하였으며, 폭력피해 위기 대응 상담은 피해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통역·번역 지원은 물론, 쉼터 및 유관기관 연계 후 해피콜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 제공 전년 比 4.9%↑(225,769건^{24년} → 236,728건^{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상담,조사, 소송 등) : 54,878건 제공(전년 比 9.8%↑, 49,959건^{24년}) - 번역(진술서,청원서,생활정보 등) : 1,935건 제공(전년 比 63.7%↑, 1,182건^{24년}) - 전문기관 연계 : 1,178건 제공(전년 比 1.0%↑, 1,154건^{24년}) - 해피콜 : 3,942건 제공(전년 比 1.1%↑, 3,743건^{24년}) ■ 13개 언어 통번역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 안전망 지원으로 대전광역시장 표창 ■ 다국어 생활정보상담 제공 및 전화센터 운영 협력 통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표창

- 이번 분석을 담당한 강복정 센터장(부장)은 “다누리콜센터가 다국어 상담

기반의 이주여성 폭력 대응 초기 대응체계이자 공공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 상담주체는 본인(49.1%)과 가족·지인·기관·경찰 등 제3자(50.9%)로 나타났으며, 체류자격은 미확인 42.9%, 결혼이민(F-6) 32.3%, 영주 및 장기체류(F-2·F-5) 8.0%, 기타 비자 9.9%, 미등록 5.0%, 국적취득 1.9%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미확인: 전화상담 특성상 이용자가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자통화 79.7%, 3자통화 11.8%, 문자 3.2%, 내방 2.1% 등으로 나타났다.
- 폭력 유형은 가정폭력 77.1%,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 영주 등은 가정폭력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등록 및 기타 체류자는 다양한 폭력 유형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 상담내용 분석 결과 ‘남편’, ‘경찰’, ‘상담’, ‘아이’, ‘피해’, ‘통역’, ‘입소’, ‘센터’,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폭력은 가족 및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해 공적 개입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사례]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자녀와 함께 경찰 동행하여 다누리콜센터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 후 쉼터로 연계, 체류 등 복합적 문제 해결지원, 해피콜 통한 사후관리
- 이주여성 임신부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경찰신고, 다누리콜센터 긴급피난처 이용 후, 병원통역 지원, 법원상담 등 법률지원

-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통합 대응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필수적인 정책 과제” 라고 강조하며, “다누리콜센터를 정책과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강화하고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붙임1 2025년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 상담 분석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 통역, 긴급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표1> 이주여성 폭력상담 이용자 특성 (n = 16,300, %)

구분	세부항목	n(%)		
성별	여성	15,180 (93.1)		
	남성	1,120 (6.9)		
	계	16,300 (100.0)		
상담주체	본인 상담	7,998 (49.1)		
	제3자 상담	8,302 (50.9)		
	계	16,300 (100.0)		
체류자격	F-6 (결혼이민)	5,261 (32.3)		
	F-2·F-5 (영주 등)	1,308 (8.0)		
	기타 비자	1,616 (9.9)		
	미등록	807 (5.0)		
	국적취득	312(1.9)		
	모름	6,996 (42.9)		
	계	16,300 (100.0)		
상담방법	전화	양자 통화	14,908	12,985(79.7)
		3자 통화	(91.5)	1,923(11.8)
	문자	520 (3.2)		
	내방	335 (2.1)		
	기타	537 (3.2)		
	계	16,300 (100.0)		

<표2> 체류자격과 폭력유형 분포 (n = 16,332, 중복 포함, %)

폭력유형 체류자격	가정폭력 n(%)	일반폭력 n(%)	성폭력 n(%)	성매매 피해 n(%)	합계 n(%)
F-6 (결혼이민)	4,980 (94.7)	180 (3.4)	77 (1.5)	24 (0.5)	5,261 (100.0)
F-2·F-5 (영주 등)	1,013 (77.4)	156 (11.9)	136 (10.4)	3 (0.2)	1,308 (100.0)
국적취득	312 (100.0)	0 (0.0)	0 (0.0)	0 (0.0)	312 (100.0)
기타 비자	665 (41.1)	491 (30.3)	457 (28.3)	5 (0.3)	1,618 (100.0)
미등록	390 (48.3)	156 (19.3)	170 (21.1)	91 (11.3)	807 (100.0)
모름	5,228 (74.4)	1,018 (14.5)	696 (9.9)	84 (1.2)	7,026 (100.0)
합계	12,588 (77.1)	2,001 (12.3)	1,536 (9.4)	207 (1.3)	16,332 (100.0)

